

제68차 정보통신표준총회 개최

- 정보통신단체표준 5건 채택, 2건 폐지,
표준화운영규정 개정 등 -

◎

제68차 정보통신표준총회가 2011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서면의결로 개최되었다. 금번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는 ‘IPTV 자막 방송’, ‘IPTV 서비스 탐색

및 전송 방식’ 등 IPTV 관련 표준 4건과 케이블 방송을 위한 제한 수신 시스템(CAS)인 ‘교환 가능형 제한수신 시스템 송수신 정합’ 표준을 개정 표준으로 채택했다. 또한, 정부의 방송통신표준화자침 및 협회의 사업참가규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협회 회원사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정보통신표준화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제77차 운영위원회 개최

- 정보통신 표준화과제 채택 등 -

◎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제77차 운영위원회가 표준화과제 채택 등을 주요 안건으로 2011년 3월 15일 TTA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모바일 자기장 통신/충전’ 프로젝트그룹 신설이 제안되어 논의되었으며, 논의 결과 제안 내용을 두 가지로 분류해 전파통신 기술위원회(TC3) 산하에 ‘자기장 통신’ 관련 프로젝트그룹 1개와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7) 산하에 ‘모바일 충전’ 관련 프로젝트그룹 1개를 각각 신설키로 하였다. 또한 4개 프로젝트그룹의 활동영역(ToR)을 최근 기술 동향을 반영해 변경하였다. 이 밖에, 이해관계인이 제안한 65건의 신규 표준 제·개정을 위한 표준화과제를 채택하고, 표준화 필요성이 소멸된 10건의 표준화과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표준총회 및 운영위원회 전임 부의장인 ETRI 정해원 센터장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으며, 후임 부의장으로는 ETRI 함진호 센터장이 선임되었다.

3DTV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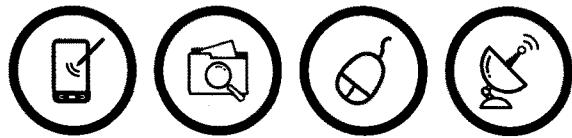
세미나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 3DTV 산업전략,
국내외 3DTV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소개 -

◎



차세대 방송 분야의 핵심 기술인 3DTV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표준화 전략을 조명하기 위한 ‘3DTV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전략 세미나’가 KCC 주최, TTA 주관으로 2월 21일 TTA 9층 대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산학연관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금번 세미나에서는 총 3개 세션 12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및 표준화 전략 소개를 시작으로, TTA를 비롯한 국내 유관 기관들의 표준화 전략과 향후 방향, 그리



2011년도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 계획 수립

◎

TTA에서는 2001년부터 국제표준화의 활동주체인 ICT국제표준화전문가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업체가 개발한 핵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해당 기술제품이 국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산업계에 최신 표준화기술 및 동향을 보급하여 국내 IT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 2010년에 총 286명이던 전문가는 2011년 1월에 개최된 전문가육성위원회 평가를 통해 250명으로 재편되었고, 전략기술분야 및 중소벤처기업 전문가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발굴을 위해 실시한 신규 ICT국제표준화전문가 공모를 통해 24명의 새로운 국제표준화전문가가 추가로 선정되어 2011년도 총 274명의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Pool이 구성되었다. 2011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및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더불어 지원기준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추가 진출과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 영향력 확대에 적극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ATSC, DVB, ITU-R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 표준화 동향을 공유했다. 국내외적으로 본격적인 3DTV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기관들 간의 연구 및 표준화 결과와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표준화 전략을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었다.

2011년도 ICT표준화전략포럼 선정

◎

TTA에서는 세계 사실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 민간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 전략분야별 'ICT표준화전략포럼' 을 2000년부터 선정 지원하고 있다.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공개)수요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1년도 포럼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61개 포럼을 'ICT표준화전략포럼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분야별 38개 포럼(국제 16개, 국내 22개)이 확정되었다. 금년 신규로 선정된 포럼은 멀티스크린서비스포럼 등 총 10개 포럼이며 앞으로 포럼 구성 및 국내외 민간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3월 25일에는 올해 선정된 38개 포럼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2011년 표준화 전략포럼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ICT표준화전략포럼 추진방안, 주요일정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 등을 소개했다.

※ 신규 포럼 : 멀티스크린서비스포럼, 코리아NFC포럼, 스마트커머스포럼, 스마트워크포럼, 모바일단말기술포럼, 스마트TV포럼, 스마트의료정보표준포럼, 데이터거버넌스포럼, ECM(전자문서) 포럼, 미래형한글문자판표준포럼

2011년도 ICT 기술표준화 자문서비스 실시

◎

TTA는 2001년도부터 비용 등의 문제로 표준화 참여가 어려운 국내 ICT 중소·벤처기업에 기술표준, 표준화 동향, 표준화 활동 방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372개사에 493회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금년에도 약 60회의 자문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문서비스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제조업)/매출액 300억 원(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이하의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TTA는 본 서비스가 ICT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및 제품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등 상세 내용은 TTA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자문서비스'로 용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린 ICT 표준화 분석서 2011 발간

◎



TTA에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ICT 중점기술 표준화전략맵 Ver.2011이 지난 1월에 발간되었다. 이를 토대로 37개 중점기술에 대한 표준화전략맵 Ver.2011의

그린 ICT 관련성 및 녹색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2011년도 그린 ICT 표준화 분석서를 발간했다. 그린 ICT 표준화 분석서는 국내외 그린 ICT 정책 및 주요 표준화 동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그린 ICT 표준화 관련 정책수립 및 표준화활동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TTA홈페이지(자료마당 - TTA간행물)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휴대전화·노트북PC, 무선충전 표준화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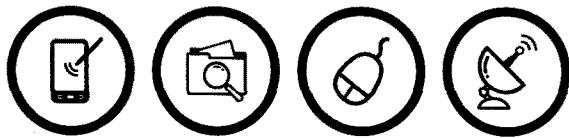
- 모바일 충전 및 응용 표준화 착수 -

◎

TTA는 모바일 단말을 무선 충전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이동통신 기술위원회 산하에 '모바일 충전 및 응용 프로젝트그룹'을 신설하고, 지난 3월 3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 표준화위원회에는 전자부품연구원, LG전자 등 8개사 20명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현우 박사(KETT)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기존 각종 개인휴대 단말기에서는 충전을 위해 각 단말기 별로 별도의 충전기들을 지니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었으나, 자기장 및 전자파 원리를 응용한 공진 자기유도 방식을 통해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별도의 선과 충전기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장조사기관인 In-Stat와 iSuppli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단말의 무선 충전은 2013년에 약 20조 원, 2018년에 약 50조 원에 이르는 세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선충전은 표준완성 및 기술개발 추이를 고려하여, 이르면 2012년부터 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진 자기유도 방식 : 송수신 안테나 간에 자기장 공진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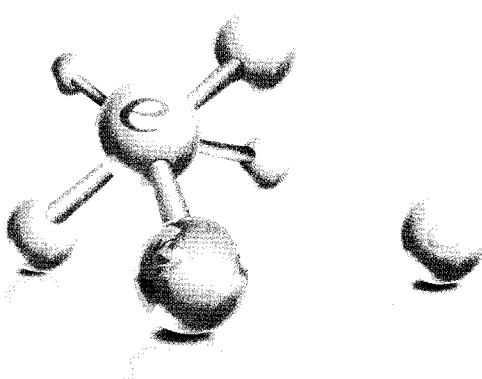


ICT 표준화 법규 해설서 발간

◎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 표준화에 관한 법제가 분산됨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표준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등이 개편되었다. 2010년 3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법 시행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12월 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 표준화에 관한 법제 정비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ICT 표준화 및 ICT 표준화 법제 연혁과 현행 법제를 설명하는 'ICT 표준화 법규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 해설서는 우리나라 전기통신의 발전과 표준화 역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제 변천 상황과 그 배경, 그리고 현행 산업 표준화,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 및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법제를 담고 있다.



교육 및 행사

- 현실가상융합 기술 세미나 -

◎



지난 3월 31일 TTA 국제회의실에서는 3D 기술에 대한 합성, 응용, 생성 등의 구체적인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3D산업 발전방향과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고자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실가상융합 기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 개의 튜토리얼 세션과 세 개의 주제발표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튜토리얼은 'Research on Hand Gesture Recognition' 및 'Study Items on Stereoscopic Image Coding'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인에 의한 두 개의 발표가 있었으며, 3D 합성/전송 기술, 가상-현실 응용 기술, 3D 영상 생성 기술 등 세 개의 주제발표 세션에서 총 9개가 진행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IPTV 미들웨어 참조구현(버전 2.0) 오픈소스 방식 배포

◎



TTA 방송시험인증단은 IPTV 미들웨어 참조구현 (Reference Implementation) 버전 2.0 개발을 완료하고, GPL(GNU Public License) 오픈소스 방식으로 2011년 3월부터 배포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2월에 IPTV 미들웨어 표준의 자바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미들웨어 참조구현 버전 1.0을 배포한 이후, KCC의 방통융합 기반기술 테스트 환경 구축 과제를 통해 2010

년 개정된 IPTV 미들웨어 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웹 프로파일의 참조구현을 추가하는 등 버전 2.0에 대한 개발을 완료해 지난 3월부터 배포를 시작했다. IPTV 미들웨어 참조구현을 오픈소스 방식으로 배포하는 목적은 국내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IPTV 미들웨어 기술을 널리 보급하여 관련 기술의 초기 정착 및 표준에 적합한 IPTV 양방향 서비스 및 콘텐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TTA는 무료 배포를 통해,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미들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을 절감해 국내 업체들의 IPTV 시장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표준 미들웨어 API의 초기정착으로 콘텐츠의 상호호환성이 확보되어 향후 IPTV 양방향 서비스 및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PTV 테스트베드 홈페이지 : <http://www.tta.or.kr/iptv/>

USB 3.0 개발자를 위한 기술 세미나 및 mini Plugfest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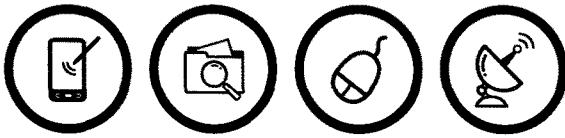
◎



지난 2월 15일 TTA 국제회의실에서는 국내 USB개발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TTA와 Agilent가 공동 주관한 'USB3.0 개발자를 위한 기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 USB-IF Compliance WG

의장이었던 Jim Choate의 'USB3.0 SuperSpeed 디자인과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USB3.0 테스팅 시연 및 실습', 'USB-IF Logo Compliance Program'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TTA와 Agilent는 기술세미나와 더불어 USB 3.0 Mini Plugfest를 개최해 국내 USB 3.0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직접 시험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USB3.0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USB 인증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TTA는 USB 기술 및 인증에 대한 동향을 국내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규격 시험인증 서비스 실시

◎



TTA는 2011년 2월부터 행정기관 도입 대상 인터넷전화 시스템에 대해 ECC 방식이 적용된 보안규격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ION)를 진행했으며, 삼성전자, 엘지 에리슨,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즈 등 3개사가 참여해 개발 중인 인터넷 전화 장비에 대한 ECC 기능 호환성을 자율적으로 검증했다. 2009년부터 정부중앙청사를 시작으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기존 PSTN 전화망을 대체하기 위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인터넷전화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국가정보원의 “국가,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게 되었으며, TTA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의 규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권고에 따라, 인증서의 전자서명 및 인터넷전화 시그널링 키관리의 암호화 방식이 RSA 방식에서 ECC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TTA에서는 관련 방식에 대한 표준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여 도입 장비에 대한 기본 보안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강해, 김재윤 연구원 세계 최초 컨티뉴아 국제 인증 전문가(CCE)에 선정

◎



이강해

김재윤

시험인증연구소 소속 이강해, 김재윤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컨티뉴아 국제 인증전문가(Continua Certification Expert, 이하 CCE)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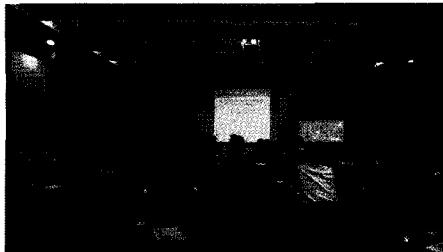
3월 30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Continua Spring Summit 2011’에서 전 세계 회원사로부터 CCE 후보자를 추천받아 최종 자격 심사를 통과한 총 5명의 CCE를 최초로 선정했다. CCE는 Continua에서 채택된 표준기술 및 인증제도에 대한 전문가로서 유헬스 업체가 Continua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제품이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되어있는지를 검토하며, 상호운용성과 적합성 보장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및 업체들의 제품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TTA는 2명의 연구원이 CCE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Continua 국제공인 시험소 유통에 좀더 다가섰으며, 조속한 시험소 자격 획득을 통해 국내 관련 업체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증 시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유헬스 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Continua Health Alliance, Continua : 2006년 필립스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헬스케어 및 피트니스 기업들이 유헬스 분야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결성한 국제 산업협력체. 현재 삼성, 인텔, 필립스 등 30개 Promoter 멤버와 TTA, SKT, ETRI 등 약 225개 Contributor 멤버들이 가입하여 활동 중.

교육 및 행사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및
CSTS 자격시험 실시 -

◎



TTA는 SW 테스트 전문기술 보급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제33차 초급교육' 및 '제5차 중급교육'을 개최했다. 약 XX여명의 SW 테스트 엔지니어 및 개발자가 참가한 가운데 초급과정에서는 테스팅 기초 이론과 실습이 진행되었고, 고급 과정에서는 테스트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SW 테스트 분야의 고급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시된 제16차 CSTS 일반과정 및 제5차 CSTS 고급과정 자격시험에서는 총 19명이 응시하여 CSTS 자격증에 대한 테스팅 관련 종사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은 초급과정 교육이 5월에 있을 예정이다. 교육 일정 및 CSTS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tta.or.kr) 하단 STEPS(SW 테스트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차순일 팀장 031-724-0186, sicha@tta.or.kr
백명순 전임 031-724-0179, myungsoon@tta.or.kr

주종옥 시험인증연구소장 취임

◎



지난 2월 7일, 주종옥 시험인증연구 소장이 취임했다. 주종옥 소장은 기술고시 19회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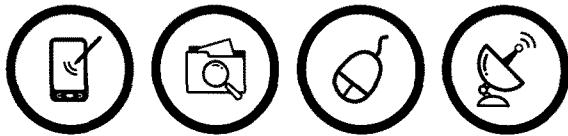
제89회 이사회 개최

◎



지난 2월 10일, 제89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0년 추가경정 예산편성결과 보고 1건의 보고안건 및 2011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2011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이사 선임(안) 3건의 의결안건을 상정하여 참여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석채 이사 후임으로 정성복 KT사장, 정만원 이사 후임으로 하성민 SKT 사장을 신임 이사로 선임 의결하고 안승권 이사 및 박재하 이사의 재선임을 의결하였다.

>>>



TTA,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부 협약에 참여

◎



TTA는 지난 2월 16일,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ICT 기관장협의회와 한국과학창의재단 간 교육기부 협약식에 참여했다. TTA는 ICT기관장 협의회 참여기관으로 TTA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ICT 분야에 대한 교육 기부로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기부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관심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생활 속의 ICT 표준 등 표준 및 표준화 활동과 ICT 시험인증을 소개하고 시험인증연구소의 시험시설 관람도 제공할 계획이다. TTA는 동 교육기부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의 공교육 질적 성장 시책을 지원하고 아울러 미래의 잠재 ICT 인력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